

SEIU 로컬 2015 반인종차별 단체가 되기 위한 결의안

모두를 위한 정의를 이루려면 미국 역사에서 최악의 유산을 대적해야 한다. 유럽 식민지주의의 지속적인 영향과 아틀란틱 노예무역을 고심한다는 뜻이다. 첫번째 식민지인이 미국이 된 땅에 도착한 때부터 397년 중 246년 동안 노예제도는 국법이었으며, 푸에르토 리코는 361년, 캐나다는 206년, 브라질은 387년이었다. 관행을 법으로 금지한 서방세계의 마지막 국가가 브라질이었다.

수 백 년 동안 흑인에 대한 잔인한 처우와 지배는 명백하고 항구적인 흔적을 남겼다. 흑인 대다수는 생계를 유지할 급여보다 적게 받았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지나가면서 부의 축적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다. 노동자 차별, 주택공급 차별, 경찰의 위협과 폭력, 조직적 대규모 투옥으로 흑인은 존엄성과 존중, 기본인권을 위하여 매일 고군분투하였다. 가장 처참한 유산은 집요하고 만연하는 구조적 인종차별로 극명히 나타나며, 지구 반구의 흑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대륙에서 수 백 년에 걸친 이러한 흑인 체험은 경제적 평등과 인종적 평등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었음을 증명한다.

오늘날 경제시스템에 이 유산의 최악이 반영된다. 수익성이 좋은 대기업은 급여를 내리고, 6천4백 만 명이 \$15 이하 시급으로 일하게 된다. 여러 개 일자리가 있고,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대부분 노예 후손이나 식민지의 후손인 유색인종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업계표준이 생기기 전에 노인과 장애인에게 재택간병을 제공했던 유색인종 여성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이 여성들은 역사상 차별적인 노동법으로 기본 법적 보호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였음에도 간병과 온정이었다. 이러한 “가사노동” 일자리는 전통적으로 남부에서 흑인 여성이 하였고 기본 근로자 권리를 받을 가치조차 없다고 여겼다. 불평등한 직업으로 추려내서 노동법으로 제정한 인종차별에 이 여성들이 일어났다. 첫 번째 재택간병 노조를 만들었고, 수 천명의 재택간병인이 SEIU에 가입하여 자신의 삶과 매일 간병하는 분들의 삶이 나아지게 하는 기반을 닦았다.

수 십 년 동안 노조는 급여 인상과 가족의 삶이 나아지게 하여 모두를 위한 정의를 승리해내는 투쟁을 해왔다. 이제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분명하다. 노조가 인종차별과 불평등을 없애지 못했다. 사실 인종정의를 이루지 못한 채로 흑인, 갈색인종, AAPI, 원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경제적 정의는 절대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SEIU 로컬 2015는 주로 흑인, 라티노, API 로 이루어진 캘리포니아 전역의 400,000 명의 다양한 장기간병인 노조이다.

평균 백인가정은 평균 흑인가정보다 41 배 재산이 더 많고 평균 라티노 가정보다 22 배가 더 많으며, 노숙하는 사람 중 78.3%가 유색인종이며,

흑인은 캘리포니아 인구 중 6.5% 일뿐이지만, 주에서 빈곤층의 20%에 해당하며, 주에서 노숙자의 40%에 해당하고,

라티노 어린이는 주의 어린이의 절반(53%)이지만, 인구조사 표준지역에서 가장 오염된 지역에 사는 어린이의 81% 에 해당하며,

승인

흑인이 소비하여 발생한 오염보다 56%가 넘는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라티노는 조금 더 높은 63%이다. 그리고,

유색인종 학생은 경찰이 더 많이 상주하는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높고, 형법에 접촉할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흑인 남학생이 학교에서 체포될 확률이 백인 남학생보다 세 배가 더 많은, 가장 큰 위험군이며, 백인 고등학교 자퇴생은 흑인과 라티노 대학졸업자보다 재산이 더 많고,

인종적 차이의 영향은 청소년 사법제도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일반인구 중 흑인 청소년은 같은 연령대의 17%에 해당하나, 청소년 체포의 46%, 청소년 법원으로 회부된 사건의 31%, 성인법원으로 넘어가는 권리포기 사건의 41%에 해당한다.

소수계 여성은 유방암 수치가 낮으나 사망할 확률이 더 높고,

미국에서 유색인종 여성은 생식건강의 모든 면에서 백인보다 훨씬 나쁜 상태이다. 백인 여성보다 흑인 여성은 출산으로 사망할 확률이 거의 네 배가 더 높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SEIU 로컬 2015 는 인종정의임무의 목표로써 **반인종차별 단체**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인종적 불평등은 정의 안전을 전부 영향을 끼치므로 따라서 인종평등이 없이 **모두를 위한 정의**를 승리해내지 못한다.
2. SEIU 로컬 2015 는 힘든 체계, 구조, 정책, 관행, 가치, 정책을 바꾸어나가면서 경제적 인종적 정의를 매끄럽게 연결하고 인종차별을 없애고 단체 내부적으로나 **또한** 세계에서 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권력이 공평하게 재분배되고 공유하게 한다.
3. SEIU 로컬 2015 는 규범, 정책, 절차, 관행의 변화로 유색인종의 자율권을 위해 노력하고 지지할 것이다.
4. SEIU 로컬 2015 는 인종정의에 대해 백인들의 책임과 이해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백인을 지지할 것이다.
5. SEIU 로컬 2015 는 반 인종차별 단체가 되기 위하여 다음을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 a. **자료 수집 -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반인종차별 단체로써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고 인종불평등이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회원을 평가하고자 한다. SEIU 로컬 2015 컨벤션과 총회에서 인종정의 설문지로 회원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 b. **인종정의 회원 위원회.** 회원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순서를 분석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종정의 회원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다. 형평성의 렌즈로 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다.
 - c. **정책과 절차에 관한 내부조사.** 로컬노조가 반 인종차별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채용, 직원 개발, 판매 회사 영역의 내부적 정책과 절차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평가를 바탕으로 임원의 재고와 승인을 위한 권고안을 작성할 것이다.
 - d. **교육과 훈련.** 모든 직원과 이사회원은 반인종차별 단체가 되는 노조임무에 관한 입문 워크샵에 참가하게 되며 모든 훈련과 교육 워크샵에 인종정의를 내포하게 할 것이다.